영화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Decreasing a sense of Uneasiness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 Focusing on Schizophrenia Patients

유인철*,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예술대학원 영상학과*, 공주대학교 영상광정보공학부**

In-Chul Yu(sootos@empal.com)*, Jin-Ah Bae(jinabae@kongju.ac.kr)**

요약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 감소 및 대인관계성 향상에 영화치료가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상담실의 직업재활과정에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친 영화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영화치료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소외와 불안 행동이 개선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의사 표현이 활발해지고 내면세계에 대한 표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인관계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불안감 지수 및 대인관계성 지수의 측정 척도를 적용한 양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감 지수에서 전체 참여자 중 7명이 일반인 평균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었으며, 대인관계성 지수에서는 10명 중 6명의 대인관계성이 일반인 평균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영화를 매개로 하는 치료 방법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불안감 감소 및 대인관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정신분열증 | 영상매체 | 영화치료 | 불안감 | 대인관계성 |

Abstrac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cinema therapy on decreasing a sense of uneasiness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s study carried out 7 sessions of cinema therapy and consultation with 10 schizophrenia patients.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be emotionally relaxed through improving their sense of alienation and nervous behaviors as well as revealed the impro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communicating lively and expressing actively. Meanwhile,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7 of 10 displayed more stable figures than the average of normal people in uneasiness quotient and 6 of 10 showed higher numbe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sure.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eatment applying the cinema therapy has significant effects on decreasing a sense of uneasiness and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 keyword : | Schizophrenia | Image Media | Cinema Therapy | Sense of Uneasines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현대인들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장애나 정신분열증과 같이 정신적인 질병에 고통 받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접수번호 : #080701-001
접수일자 : 2008년 07월 0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7월 28일
교신저자 : 배진아, e-mail : jinabae@kongju.ac.kr

특히 질병이 진행되면서 신체 이상증상 뿐 아니라, 불안감이나 대인관계 장애, 자존감 저하, 학습능력 장애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다른 병에 비해 과격하고 특이한 증세를 보이며 완치가 되지 않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평생을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도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중증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1]. 따라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는 병원 이외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정신분열증의 치료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각 시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재활요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무용치료, 풍물놀이 등 다양한 집단 활동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예술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환자에게 부담 없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이렇듯 여러 가지 유형의 예술치료가 정신분열증의 치료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영화치료를 정신분열증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영화치료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의 치료 차원에서보다는 일반인들의 자아실현[4]이나 자아정체감[5], 대인관계 향상[6] 등에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때 수용자들은 영화 내용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7]. 이러한 영화매체의 속성으로 인해 영화치료는 환자들에게 안전감과 안도감을 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노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재활이나 사회적응 과정에서 영화 치료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를 적용한 치료방법이 정신분열증의 치료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 치료의 일종으로서 영화 치료의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영화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 문제

영화치료는 약물치료와 같은 의학적 치료와 달리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복귀 내지는 사회적응 차원의 재활치료에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신분열증에 대한 영화치료는 주로 사회적응의 저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불안감과 대인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게 된다.

불안감이란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장해를 줄 정도로 지나친 부담을 갖는 상태[8]를 뜻하며, 대인관계성은 주변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심리적 지향성으로서, 개인의 사회 적응과 성장, 자아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영화 치료에서의 영화 감상은 감정이입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과정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는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영화치료가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대인관계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논의

1. 예술치료로서의 영화치료

예술치료는 독서, 사이코드라마, 미술, 음악, 연극, 원예, 무용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 내부의 심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건강한 사고와 감정을 기르는 치료방식을 의미한다. 예술치료는 기존의 언어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표현의 도구로서 미술, 음악 등의 예술 장르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10]. 예술치료는 크게 표현 위주의 치료와 감상 위주의 치료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음악, 미술, 무용 등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의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는 예술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며, 후자는 예술품의 감상과 소통을 통해서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억압된 심리를 외부화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영화 만들기 치료(video work cinema therapy)는 전자에, 영화를 감상하고 집단상담 등을 통해서 영화 내용을 소재로 소통하는 상호작용적 영화치료(interactive cinema therapy)는 후자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0].

영화치료(cinema therapy)는 필름치료(film therapy), 비디오치료(video therapy), 릴치료(reel therapy)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영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몰입과 카타르시스의 경험은 심리적 위안과 해소라는 감정치유의 효과를 일으키며, 등장인물과의 동일시와 영화와 대상간의 안전한 거리감은 긴장이완과 심리치유의 결과를 가져온다[11][12].

2. 정신분열증에 대한 영화 치료 효과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성 훈련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는데, 이 중 심리치료는 다시 행동치료, 정신분석, 자아분석, 예술표현치료, 가족치료, 직업훈련치료 등으로 유형화된다. 영화치료는 심리치료와 사회성훈련치료에 모두 해당되는 치료 요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화치료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치료적 영화보기가 보호 조치된 피학대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회복에 큰 효과가 있으며[13],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인지 및 친밀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5]. 또한 영화치료가 타인에게 느끼는 두려움이나 억압된 정서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치료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들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화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영화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D시 정신보건센터 상담실의 직업재활과정에 있는 20대에서 40대 중반의 정신분열증 환자 10명이었다(남성 6명, 여성 4명).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성별(나이)	학력	첫발병(기간)	발병 증상
여A(29)	대재	25세(4년)	대인기피
남A(57)	대졸	27세(30년)	대인기피, 불안
여B(24)	중졸	16세(8년)	대인기피, 우울
남B(39)	초졸	15세(24년)	불안, 분노
여C(36)	중졸	16세(10년)	강박, 대인기피
남C(35)	고퇴	23세(12년)	불안, 초조, 환청
여D(35)	전졸	22세(13년)	환청, 망상
남D(43)	대졸	23세(20년)	환청, 망상
남E(37)	고졸	30세(7년)	불안, 초조, 환청
남F(42)	고졸	19세(23년)	불안, 자살미수

2. 연구 도구

연구에 적용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태-특성 불안감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와 대인관계 측정도구(RCS: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활용하였다.

측정에 적용된 불안감 척도는 Spielberger가 개발하고 김정택이 번역한 것으로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의 리커트 척도이다[10].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Shiein과 Guerney의 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가 번안하고 전석균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의 리커트 척도이다[10].

3. 연구 절차와 프로그램

영화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7회에 걸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회당 소요시간은 120분 내외였으며,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 연구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였다.

표 2.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회기	프로그램 목표	영화보기	활동내용
1	집단 구성원간의 이해, 오리엔테이션	강아지똥	영화치료 목적 및 진행방법 소개, 구성원간의 자기소개 및별칭짓기
2	친밀하고 공감적인 관계 형성, 영화속에 빠져 크게 웃기, 집중력 강화	못말리는 결혼	이완활동,명상과 호흡활동, 간단한 몸풀기운동, 자신이 가진 장단점과 지금 힘든일 나누기
3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이슈의 확인 및 탐색, 확인된 문제해결 및 통찰력 증진	제8요일	알아차림 활동,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 일어나는 억압된 심정을 말하기, 짝꿍텔레파시 게임
4	영화치료에 대한 신뢰감 형성,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추	포레스트 검프	나의 좋은 세계 탐색하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역으로 바라보기
5	자존감 강화하기, 대인관계 상호작용하기	뷰티풀 마인드	짝인터뷰하기, 편지쓰기,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나를 관찰하기
6	긍정적 언어와 부정적 언어가 자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셀프 리더쉽 기르기	쇼생크 탈출	도미노게임, 패러다임의 전환, 자신에 대한 지금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통찰하기
7	행복한 가정 꾸미기,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 집단에서의 성공경험	너는 내운명	날말연상게임, 타인이보는 내모습, 프로그램 전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나누기

영화치료는 영화 감상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며, 상호작용적 치료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집단상담 기법의 도입이 그것인데, 여기에서 영화감상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내담자의 삶을 통찰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기법을 적용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회기별 프로그램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영화를 선정하여 감상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초반 회기에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줄거리가 단순하고 가볍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치료에 적용하였다. 후반 회기로 갈수록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진지한 영화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내적 통찰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하였다. 또한 한국시네마 치료연구소가 개발한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테마 I' 시네마치료 워크샵 북에 있는 집단토론과 활동에 관련된 게임을 치료에 적용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크게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질적 방법으로서 영화치료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과 집단 인터뷰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찰된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개인별 상담지와 집단 작업지, 집단 내의 발표내용, 과거병력, 신상일지 등을 근거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양적 자료의 수집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조사한 상태-특성 불안감 척도 및 대인관계성 척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된다.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이루어진 참여자의 행동에 대한 참여관찰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질적 분석 결과로서, 프로그램 전후의 개인별 행동 변화에 대해 불안감 및 대인관계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두 번째로는 상태-특성 불안감 척도를 통해서 측정된 불안감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영화치료가 불안감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측정도구를 가지고 측정된 대인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화치료가 대인 관계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보았다.

1. 프로그램 전후의 개인별 행동변화: 질적 분석

영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불안감이나 대인관계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처음에는 불안한 행동이나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안정되어가면서 미소를 짓거나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남A, 남B, 여C 등). 또한 타인과 눈을 맞추지 못하거나 몸을 앞뒤로 흔들며 불안한 행동을 보이던 참여자의 경우(여B)에도 영화치료 이후에는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행동이 경직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참여자(남C) 역시 영화치료 이후 다른 참여자들과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등 불안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전후의 행동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는 불안감 감소 효과보다는 대인관계성 향상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초기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거나(여A, 남A)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컸으며(여B), 자신의 개인적인 내면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는 등(남F) 대인관계 기피성향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타인과 눈을 맞추지 않거나, 다른 참여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여C).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여A, 남A, 여B, 남C, 여D), 질문이 많아지거나(여C)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남F) 등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참여자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여B와 여D). 또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거나(여A), 어머니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여C), 남편에게 좀 더 친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여D) 경우가 그 예이다. 가족관계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대인관계성이 향상된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거나(남E) 교회에서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남F).

불안감 감소 및 대인관계성 향상에 미치는 영화치료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와 '거리두기'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치료 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시'는 영화의 내용에 빠져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서 감정적 순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4회 치료에서 감상했던 <포레스트 검프>의 검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거나(남B), 5회 치료에서 감상했던 <뷰티풀 마인드>의 알리사와 동일시하는(여A, 여D)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이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등장인물에 대한 동정심이나 부러움에 대한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동일화 과정을 통해서 감정적 순화를 경험하거나,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 두기'는 영화의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등장인물의 언행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만약 자신이 등장인물이라면', 내지는 '만약 자신이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 통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이 처해진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위안을 받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영화치료를 통해 이러한 거리 두기와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간접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겠다.

영화치료 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영화치료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영화치료에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영화를 제대로 보지 않거나 영화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영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기를 더해가면서 점차 영화를 더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영화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자

기 자신에게 투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화치료가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적어도 5회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화에서 시작하여, 점점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내는 영화로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영화치료가 불안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불안감은 총 20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불안감 척도의 총점은 80점이며, 20~32점일 경우 매우 안정적, 33~44점은 안정적, 45~56점은 약간 불안, 57~68점은 불안, 69~80점은 매우불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안감 지수는 22에서 66으로 개인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주었다. 영화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측정 척도에 대한 오염의 우려로 인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사후 수치의 비교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불안감 지수의 일반적인 평균치가 52점이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평균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의 불안감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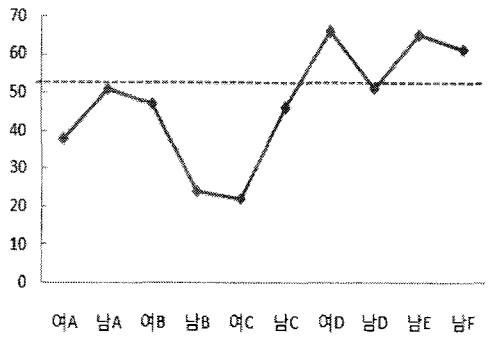


그림 1. 개인별 불안감 지수

[그림 1]에는 각 참여자의 불안감 지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가운데 점선은 일반인들의 불안감 지수 평균인 52점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참여자 중 7명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여C 및 남B 참여자는 각각 22점과 24점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였으며, 여A가 38점으로 안정적인 상태였다. 또한 남A(51점), 여B(47점), 남C(46점), 남D(51점)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점수인 52점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나머지 세 명의 참여자(남E 65점, 남F 62점, 여D 66점)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안한 것으로 측정된 참여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영화치료가 대인관계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성의 측정은 25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인관계성 지수는 총점이 125점이고, 점수가 25점~45점일 경우 관계성이 매우 낮음, 46~55점은 관계성 낮음, 56~75점은 관계성 보통, 76~95점은 관계성 좋음, 96~125점은 관계성 매우 좋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안감 측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사전-사후 측정 결과의 비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인관계성 지수의 평균치가 78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의 대인관계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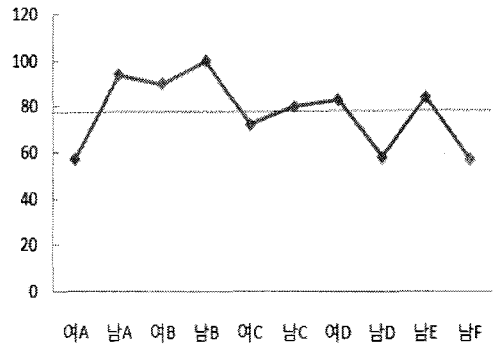


그림 2. 개인별 대인관계성 지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0명의 참여자 중 6명이 평균치보다 높은 대인관계성을 보였다. 남B가 100점으

로 관계성이 매우 좋았으며, 남A(94점)와 여B(90점), 남E(84점), 여D(83점), 남C(80점)의 경우 관계성이 좋았다. 여C(72점)와 남D(58점), 여A(57점)와 남F(57점)는 평균치보다 낮은 대인관계성 지수를 기록하였지만, '관계성 보통'의 수준을 나타내서 정신분열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성 지수가 부정적인 사례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은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대인관계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앞의 질적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함의

영화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먼저 질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영화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감과 대인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외와 불안 행동 등이 개선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 표현이 활발해지고 내면세계에 대한 표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인관계성이 향상되었다.

불안감 감소와 대인관계성 향상의 경향은 측정 척도를 적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불안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중에서 7명이 평균보다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성 지수에서는 10명 중 6명의 대인관계성이 평균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영화라는 매개를 활용한 치료기법이 정신질환자들의 불안감 감소 및 대인관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치료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동일시'와 '거리 두기'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동일시'를 통해 정서적 순화와 자기 발견을 경험하며,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향후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반인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이나 억압된 감정의 치유 과정에서 뿐 아니라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영화치료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병원에서 나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영화치료는 유용한 치료 기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영화치료는 1회성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자들이 영화라는 매체에 적응하면서,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일시, 감정이입, 몰입, 거리 두기, 비판적 평가 등과 같이 환자들이 영화의 수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과정들을 외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치료에서도 게슈탈트 집단상담 기법 등을 병행함으로써, 영화와 관련한 정신적 과정들을 자각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연구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사전-사후의 불안감 지수(혹은 대인관계성 지수) 비교를 통해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적은 수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곽명순,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박사논문, 2003.

[2] 이소우, 김태경, "정신과 입원환자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84-92, 1984.

[3] 김상미, 정정순, "예술치료가 자폐아동의 부적응 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3권, 제1호, pp.211-241, 2007.

[4] 김준형, *영화 집단 프로그램이 자아실현과 영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5] 박선민, *영상자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수지, 안창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53-366, 2005.

[7] M. P. Nicholas and R. C. Schwartz, Family Tehraphy, Boston: Allyn and Bacon, 1998.

[8] D. L. Silla,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15, N.Y.Macmillan Co. & The Free Press, pp.338-348, 1968.

[9] J. Y. Lee and S. M. Kw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logy: Rec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task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81, Column 3, pp.461-493, 2006.

[10] 김수지,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논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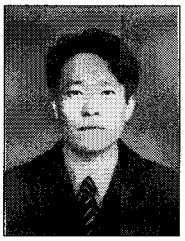
[11] L. Berg-Cross, P. Jennings, and R. Baruch, "Cinematherapy: theory and application," Psychotherapy in Private Practice, Vol.8, Column 1, pp.135-156.

[12] S. B. Dermer and J. B. Hutchings, Utilizing movies in family therapy: Applications for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9, pp.163-180.

[13] 김정석, *보호조치된 피학대아동의 가족복귀를 위한 영화치료 적용 사례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 및 유아교육전공 석사논문, 2004.

저 자 소 개

유 인 철(In-Chul Yu) 정회원



- 2008년 2월 : 공주대학교 영상학과(공학사)

<관심분야> : 영상 메시지의 효과, 영화치료

배 진 아(Jin-Ah Ba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02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언론학 박사)
- 2002년 10월 ~ 2005년 2월 : MBC 전문연구위원
- 200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상 메시지의 효과, 영상치료, 수용자 연구, 방송 정책